

특별취재



부안군보건소 한복입고 새해인사

부안군보건소가 정유년 새해를 맞아 '오복 상징 개량한복'을 입고 직원들에게 새해인사를 드려 호응을 얻었다. 2017년 새해 첫날인 지난 2일 부안군 보건소 진료실 직원들은 개량한복을 입고 보건소를 찾은 민원인사와 새해인사와 함께 따뜻하게 맞이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절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건강 프로그램 방역, 점심시간을 이용한 힐링음악 방송, 부안 특산물 상지차·뽕잎 차 제공, 마을행복메세지 등 민원부서 직원의 지속적인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농촌지원 시범사업 접수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2017년도 농촌지원 시범사업을 적기 적소에 내실있게 추진하고 후계인력 양성을 통한 활기찬 농촌을 만들고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득향상, 농장경영 전문 컨설팅을 통한 CEO 양성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업인(법인),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 희망 농가의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2017년도에 추진되는 농촌지원 시범사업은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 2개소 1억원, 농촌교육농장 안전시설 지원 8개소 160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1개소 5000만원,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사업 1개소 5000만원, 농업경영개선 및 소규모 생산품 유통지원 2개소 2200만원이다.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8개소 1억원, 선도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3개소 6000만원, 농산물 디자인 개발사업 2개소 4000만원 등 총 8개사업에 4억 1800만원이 투입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소방서, 지난해 '화재 사망자 제로화' 목표 달성

정읍소방서는 2016년도 화재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제로화'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화재 사망자가 매년 1건씩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으나, 2016년에는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2009년 이후 7년 만에 화재 사망자 제로화라는 쾌거를 거뒀다.

2015년 202건의 화재로 인명피해 14명(사망 1명, 부상 13명)과 재산피해 9.3억원이 발생한 반면, 2016년에는 165건의 화재로 전년 대비 22.4%(37건)가 감소하고, 인명피해는 부상자만 6명 발생하였으며, 또한 재산피해도 36.5%(2.5억원)가 감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재산총병 예방주사 추진

김제시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경음·청하면 일원, 도시공원 등 약 10ha에 대하여 재산총병 예방나무주사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5월 민경음에 총5본의 재산총병 피해고사목이 발견되었으나 시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추가 감염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총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는 죽어가는 소나무에 알을 낳아 월동하므로 재산총병 발생지 주변인 민경음과 청하면 일대를 정밀 예찰해 고사목 등을 벌채하고 두께 2cm 이상 가지까지 전량 수집·파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정읍시, 기업 만족도 최고

전국 기업체감도 평가 전북 1위... 경제활동친화성 도내 3위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정읍입니다" 정읍시가 도내 14개 시군 중 기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연말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규제평가에서 정읍시가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전북 1위를 차지했으며,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는 S등급을 받아 도내 3위를 기록했다.

시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 7천만원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규제 합리성과 행정시스템, 관련 공무원, 규제 개선의지 등을 기준으로 실시된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규제와 기업애로 해소 등에 주력한 결과 기업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있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실이다"며 "앞으로 기업유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기업하기 좋은 정읍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정하고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와 지속적인 발굴과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활용 방안, 그리고 기업인 애로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정책토론회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간담회나 정책 토론회 시 수렴한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연말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규제평가에서 정읍시가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전북 1위를 차지했으며,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는 S등급을 받아 도내 3위를 기록했다.

기업 애로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섰다.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정읍지역 입주기업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경제활동 친화성 관련, 중소기업 창업지원상담센터와 소상공인지원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했고 정읍시 폐기물관리과 관련 조례 제정 등 환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의 규제개혁을 위한 발로 뛰는 행진이 성과를 거둔 것일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절차 간소화 등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노력 덕분이다"며 "이 같은 성과가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김제시, 농기계종합보험료 자부담 반 지원

50% → 25%로 감소... 928대 2억4000만원 규모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승복)는 올해부터 농작업 중 농기계에 발생하는 인사상,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기계 종합 보험의 자부담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보험료는 928대 2억4,000만원으로 높은 자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 보험료는 국비와 농가가 각각 50%를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시비에서 총 보험료의 25%를 지원함에 따라 가입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등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17. 1. 1~2017. 9. 30.

기간에 가입한자이며,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광역방제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스피드스프레더,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트랙터, 풀바인, 결속기, 농용굴삭기, 항공방제기를 포함한 12 기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는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신청 및 가입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이승복 김제시장권한대행은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물재해보험과 연계하여 각종재해 및 위험에 취약한 농업인에게 통합 맞춤형 복지농업 정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안정영농 도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병수 농어촌공 동진지사장 취임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제11대 김병수 동진지사장이 2일 취임했다.

김병수 지사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소통을 통한 화합경영을 강조하고 경영역 개선과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힘쓰며 상호협력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 공정하고 원칙을 지키는 배려와 화합,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선진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하기를 당부했다.

신임 김병수 동진지사장은 전북 임실이 고향이며 지난 89년 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무진장지사 유지관리팀장, 금강사업단 공무원, 전북지역본부 기반관리부장을 역임했으며, 2016년 부안지사장으로 재직하다 2017년 1월 2일 동진지사장으로 부임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 조광신 부안군 주무관, 국무총리 표창

"공무원 신분으로 의당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게된 것은 그동안 저의 업무를 도와준 동료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바 임무를 헌신적으로 군민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공로로 부안군 민원소통과 조광신 주무관(45·시설7급·사진)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지난 1999년 부안군 종합민원실 시설직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조 주무관은 민원실에 터치형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설치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더욱이 조 주무관은 지적공부 영구보존문에서 마이크로필름화로 518,057장을 전산화해 추진하고, 지적도면 6,834장을 완료했다.

그는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967건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 등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군민 재산권보호에 앞장섰다.



이 밖에도 조 주무관은 2015년 국정시책합동평가 실적 189.8% 달성 '가' 등급으로 전북 3위, 2016년 국정시책합동평가 200% 달성 '가' 등급으로 전북 1위를 달성했고 2017년 9월 기준 전체 사업량에 대해 100% 완료했다.

평소 근면·성실을 생활 신조로 책임감과 탁월한 능력으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하여 국토 해양부장관·도지사·부안군수상을 4회를 수상하는 등 공적자로서 모범을 보인 조 주무관은 부인 전진경씨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 정읍농기, 자생식물교실 수강 신청 접수

17일까지 접수...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운영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이달 17일까지 올해 운영할 자생식물교실 수강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기술센터는 "산과 들에서 나는 자생식물의 특성과 종류, 이용방법 등을 배워 소득작물화하기 위해서 올해도 자생식물교실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셋째 주 수요일) 실시된다.

계절별로 꽃피는 자생 식물 기르기에 대한 이론교육과 우리 꽃 분경, 목부작 만들기 실습 및 현장 교육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강사진은 자생식물에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장(김정영)과 외부 강사로 구성된다.

센터 관계자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시민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